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A형

[논술고사 시간 10:00 ~ 12:00]

모집단위	학부·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수험생 유의사항 】

1. 답안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3. 답안지 작성 시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펜을 사용할 것. (청색/적색펜 및 연필은 사용 불가)
4. 문제지와 답안지의 문제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불일치 시 0점 처리)
5.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6. 답안지 수정은 원고지 교정부호를 사용하여야 함.(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음)
7. 각 문항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0점 처리함.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가]

우리 사회에서 ‘호랑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호랑이란 줄무늬를 가진 동물이라고 여긴다. 동화책 속의 삽화는 호랑이의 줄무늬를 강조한다. 줄무늬는 그 삽화가 호랑이 그림임을 보여주는 데 중요하다. 사전에서 호랑이는 “고양이 과에 속하며 발이 네 개이고 황갈색 바탕에 거무스름한 가로 줄무늬가 있고 배는 흰색인 커다란 육식 동물”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한 단어와 연관되는 통념을 기술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도 있다. 가령 숲이 파괴되어 호랑이가 사막에 살게 된다면 줄무늬는 균일한 색깔로 변화되어 사막의 환경에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랑이가 줄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전의 정의만 만족시키면 필연적으로 호랑이인가? 사전에 기술된 호랑이의 외양을 모두 갖고 있지만 내부 구조는 호랑이의 그것과 완전히 다른 한 동물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사전적 정의에 ‘고양이 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호랑이가 어떤 특정한 생물학적 과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니, 여기의 이 가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고양이 과’를 단지 고양이의 외양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자. 그렇다면 가정의 그 동물은 큰 고양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선가 비록 호랑이와 똑같이 보이긴 하나 조사 결과 심지어 포유류조차 아닌 동물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것이 실은 매우 특이한 모양의 파충류였다고 해 보자. 그 동물이 호랑이와 똑같아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호랑이는 파충류라고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 원래부터 호랑이를 식별해 내는 데 사용하는 외적 표식들을 갖고 있는 동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동물을 호랑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물은 우리가 ‘호랑이 종’이라고 부르는 그 종과 동일한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 호랑이에 대한 예전의 개념이 새로운 과학적 정의에 의해 대체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는 호랑이의 내부 구조가 밝혀지기 이전의 호랑이 개념에서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비록 호랑이의 내부 구조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호랑이가 특정한 종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모든 외양에 있어서는 호랑이와 같으나 내부 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호랑이와 같은 종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동물을 상상할 수 있다. 심지어 그 내부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동물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호랑이’라는 단어는 한 종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이 종이 아닌 것은 그것이 아무리 호랑이 같아 보인다고 해도 실제로는 호랑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호랑이를 식별해 내기 위해 기존에 동원된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어도 호랑이가 아닐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랑이가 실은 이러한 속성 중 그 어떤 것도 갖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어떤 호랑이도 네 발이 아니고 황갈색이 아니고 육식성이 아니며 이러한 모든 속성은 착시 혹은 다른 어떤 혼동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나]

1960년대 후반 인류학자인 벌린(Brent Berlin)과 케이(Paul Kay)는 여러 언어에서 색채의 영역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보기 위한 연구를 고안하였다. 그들은 우선 다음과 같은 색채어의 특징에 기초하여 기본 색채어와 비기본 색채어를 구분하였다.

- 색채어가 단일 어휘소이면(즉, 단 하나의 어휘소만 포함한다면), 그것은 기본 색채어이다(가령, 적색, 녹색, 청색).
- 한 색채어의 의미가 다른 색채어의 의미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본 색채어이다. 진홍색의 의미는 적색의 의미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 색채어가 아니다.
- 한 색채어의 사용이 단 하나의 사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본 색채어이다.
- 기본 색채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노란색은 기본 색채어인 반면에 강청색(鋼靑色)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색채어가 아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벌린과 케이는 세계 여러 지역의 언어들에서 많은 기본 색채어를 발견했다. 그들은 실험대상자인 이들 언어의 원어민 화자들에게 두 가지 과제를 부여하였다. 하나는 기존의 색채 연구와 마찬가지로 실험대상자들에게 기본 색채어의 경계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과제에서는 자료 수집에 관한 방법론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들은 “특정한 색채어의 경계는 어디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특정 색채어의 경계 내에 있는 여러 색조 가운데 어떤 것이 기본 색채어의 전형적인 색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실험대상자들은 기본 색채어의 특정한 색조를 일관성 있게 가리켰다. 즉 초점 색채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이 그러한 초점 색채이다.

검은색, 흰색, 적색, 청색, 녹색, 노란색, 갈색, 자주색, 핑크색, 오렌지색, 회색

초점 색채는 기본 색채 범주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 기본 색채 범주는 기본 색채어로 명명된다. 영어에는 11개의 초점 색채가 있다. 다른 언어에서는 그 수가 더 적을 수도 있지만, 기본 색채어가 11개 이상인 언어는 없는 듯하다. 비록 초점 색채에 대한 모든 이름이 각각의 언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조사된 모든 언어에서 초점 색채가 발견되었다.

또한 벌린과 케이는 기본 색채어의 발달 순서를 발견했다. 이것은 기본 색채어가 모든 언어에서 보편적인 순서대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검은색, 흰색 // 적색 // 청색, 녹색, 노란색 // 갈색 // 자주색, 핑크색, 오렌지색, 회색

이것은 한 언어에 기본 색채가 두 개이면 검은색과 흰색이 기본 색채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개이면 검은색, 흰색, 적색을 비롯해 노란색, 청색, 녹색 중의 하나가 기본 색채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언어에 모든 기본 색채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어떤 언어에서는 하나의 기본 색채어가 청색이나 녹색과 같은 두 가지 색채 범위를 가리킨다. 그런 경우에 가장 전형적인 색은 청색이나 녹색이지 그 둘 사이의 색채인 청록색은 아니다.

[다]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통계학적 개념이나 추론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통계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보여준 사람은 벨기에의 통계학자 케틀레(Adolphe Quetelet)였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사회현상에도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정규분포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사회현상에 있어서도 평균에 가까운 사례가 빈번히 발견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사회학에서 통계학적 방법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양화론(量化論)을 강조한 실증주의가 등장한 이후부터이다. 그 대표적인 학자인 룬드버그(George A. Lundberg)는 계량화가 과학적 일반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계량적인 접근을 통해 과학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서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기딩스(Franklin H. Giddings) 역시 사회학은 그 방법에 있어서 통계학적 학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실증주의자들은 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은 가치판단을 형성할 수도 없고 또 형성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의 과학관에 따르면 과학적 연구는 이론적 명제와 경험적 관찰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연구를 이론적 명제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연역을 통해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게 된다. 도출된 가설은 때로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 즉 작업가설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이 과정을 조작화 또는 조작적 정의라고 부른다. 경험적 검증을 위한 작업가설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명료해야 한다. 작업가설 속 모든 변수들을 측정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정의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개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과학적 접근에서는 연구자의 견해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셋째,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방법론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가설은 가설로서 의미가 없다.

작업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측정도구를 만들고 표본을 추출하여 이를 관찰하게 된다. 개별적으로 관찰된 현상은 통계적으로 요약되는데 표본에 의한 것일 경우 모수(母數)*를 추정함으로써 경험적 일반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찰된 자료들이 앞서 설정한 가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이론을 받아들이거나 수정 또는 거부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인 경향이나 추세를 파악하기도 하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서 인과적인 모형을 구성하기도 한다. 근자에 향상된 컴퓨터 처리능력과 세련된 통계적 기법을 통해 사회과학도들은 사회현상의 단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통계학적인 방법과 모형을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법칙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모수(母數) ... 통계학에서 모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수(定數)

[라]

대체로 말이란 단순히 불어내는 바람이 아니다. 말이란 말하는 것이니 말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과연 말은 있는 것인가. 말은 있는 적도 없는가. 그것이 어린 새의 지저귀는 소리와 다르다고 한다면, 과연 분별되는 것인가 혹은 분별되지 않는 것인가. 도가 어찌 가려져 참과 거짓이 있게 되며 말이 어찌 가려져 옳음과 그름이 있게 되겠는가. 도가 어찌 어디로 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말이 어찌 고정되어 불가함이 있겠는가. 그러나 도는 조그만 성취[小成]에 가려지며 말은 화려한 수식에 가려져 유가(儒家)와 묵가(墨家)의 시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으로써 이것이 아닌 바가 생기고 이것이 아닌 바로써 이것이 생기니, 이것이 아닌 바를 이것이라 하고 이것인 바를 이것이 아닌 것이라 하고자 한다면 밝은 지혜로써 살펴봐야 한다.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저것에서 보면 보이지 않으나 스스로 알게 되면 그것을 안다고 한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 때문에 생겨나고 이것 역시 저것 때문에 생겨난다’고 말한다. 저것과 이것은 상대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이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으며 긍정하는 것이 있으면 부정하는 것이 있고 부정하는 것이 있으면 긍정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있으면 이것 아닌 것이 있고, 이것 아닌 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이러한 분별에 근거하지 않고 하늘의 섭리에 비취보니 이 역시 이것에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곧 저것이요 저것이 곧 이것이다. 저것에도 이것과 이것 아님이 있고 이것에도 이것과 이것 아님이 있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는 것인가, 이것과 저것이 없는 것인가. 이것과 저것이 각각 짝을 얻지 못함을 ‘도의 지도리’[道樞]라고 한다. 지도리는 그 둥근 고리 속에 끼워져야 끝없이 응하게 된다. 이것도 하나의 끝없음이요 이것 아닌 것 역시 하나의 끝없음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밝은 지혜로써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칭하는 것으로 지칭하는 것이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우는 것은 지칭하지 않는 것으로 지칭하는 것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만 못하다. 말[馬]로써 말이 말 아님을 깨우치는 것은 말이 아닌 것으로써 말이 말이 아님을 깨우치는 것만 못하다. (……)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길이란 사람들이 다녀서 이루어지고 사물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컫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다. 어째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니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사물에는 본디 그러한 바가 있고 사물에는 본디 그렇다고 하는 바가 있으니 어떤 사물도 그러하지 않은 바가 없고 어떤 사물도 그렇다고 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줄기와 기둥, 문둥이와 서시(西施)*를 대조시키면 괴상하고 야릇하지만, 도에서는 통하여 하나가 된다. 저 나뉘이 이룸이요 이룸이 무너짐이다. 모든 사물이 이룸과 무너짐이 따로 없이 다시 통하여 하나가 되니, 오직 도에 통달한 자라야 통하여 하나로 됨을 알아서 지혜의 분별을 버리고 용(庸)에 맡긴다. 용(庸)은 용(用)이요, 용(用)은 통(通)이며, 통(通)은 득(得)이다. 득(得)하면 도에 가깝다. 오직 따를 뿐 그것의 그러함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도라 한다.

* 지도리 … 문짝을 문설주에 달고 여닫기 위한 쇠붙이

* 서시(西施) … 춘추전국시대 월나라의 미녀

[마]

<표 1> 지난 1년간 부모에 의한 신체적 폭력

(단위: %)

신체적 폭력	폭력없음	폭력있음				소계	계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렸다	86.2	7.3	2.9	1.4	2.2	13.8	100.0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87.1	6.7	3.0	1.3	1.9	12.9	100.0
나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96.0	1.8	1.1	0.3	0.8	4.0	100.0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92.9	4.0	1.9	0.4	0.8	7.1	100.0
사정없이 때렸다	95.2	2.1	1.6	0.4	0.7	4.8	100.0

<표 2> 지난 1년간 부모에 의한 정서적 폭력

(단위: %)

정서적 폭력	폭력없음	폭력있음				소계	계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73.6	15.2	5.9	1.4	3.9	26.4	100.0
고함을 질렀다	62.8	16.9	9.8	4.0	6.5	37.2	100.0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	79.7	10.5	3.9	2.1	3.8	20.3	100.0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81.4	10.0	4.5	1.8	2.3	18.6	100.0

<표 3> 부모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과 횟수에 따른 자아개념

(단위: 점)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폭력없음	폭력있음		폭력없음	폭력있음	
		1~5회	6회 이상		1~5회	6회 이상
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43	2.53	2.76	1.97	2.02	2.00
나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37	2.57	2.64	2.27	2.42	2.57
나는 내가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1.86	1.88	1.85	2.11	2.36	2.51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17	2.11	2.19	2.34	2.49	2.59
나는 내가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1.82	2.07	2.14	1.72	1.77	1.79

<표 4> 부모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과 횟수에 따른 비행행위

(단위: 점)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폭력없음	폭력있음		폭력없음	폭력있음	
		1~5회	6회 이상		1~5회	6회 이상
음주	3.05	3.24	3.41	3.02	3.33	3.61
흡연	3.21	3.48	3.57	3.23	3.46	3.65
가출	1.07	1.01	1.04	1.09	1.14	1.10
협박하기	1.56	1.71	1.94	1.54	1.44	1.43
무단결석	2.11	2.05	2.05	2.09	2.26	2.51

□ 문 항 □

<문항 1>

[가]의 내용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것을 [나]-[라] 중에서 모두 찾아, [가]와의 차이점을 각각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항 2>

[마]는 전국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1>과 <표 2>는 10대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부모에게 당한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3>은 부정적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다섯 개 문장에 대한 응답 평균점을 각 집단별로 보여주고 있다. 각 문장에 대해 설문참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표 4>는 지난 1년간 다섯 가지 비행 행위를 저지른 횟수를 각 집단별로 보여주고 있다. 비행 행위별로 각기 다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높은 점수는 각 비행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는 뜻이다. 모든 표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문항 3>

장미는 이유 없이 핀다. 그러나 우리는 장미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장미를 파악하려고만 한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호젓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장미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고 해체되어 버린다.

위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한 뒤, [가]-[라]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